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 기업형사사건 전면 대응 체계 구축

- 형사재판 분야 스타변호사인 '최창영 변호사'를 주축으로 판사 출신 형사재판 전문가 대거 포진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지금까지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사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조세포탈 사건, M&A를 통한 기술유출 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 또는 추정액 전액 면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형사재판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송무 분야는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Band 1으로 상승한데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습니다.¹

기업형사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민사상 사용자책임,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과 같은 행정상 책임은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에 기초한 쟁점 발굴과 해결 방안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발족하고,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업형사재판팀의 팀장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담당합니다. 최창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해광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사건을 전담하며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공법 영역 전반의 형사사건에 정통한 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역임한 김세종 변호사(연수원 30기), 의료인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다수의 자본시장·가상자산·기업 범죄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축적해 온 하태현 변호사(연수원 33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세형사사건 전문가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 등이 주축이 되어 실무를 주도합니다.

아울러,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 건설·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김용호 변호사(연수원 25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권순열 변호사(연수원 31기),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을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특허법원 출신의 제약 분야 전문가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서영호 변호사(연수원 35기) 등 법원에서 다양한 기업분쟁을 경험해 온 송무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활약해 온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및 다수의 주요 기업금융사건과 기업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이민현 변호사(연수원 44기) 등도 합류하여 시너지를 낼 예정입니다.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이러한 만파위를 바탕으로 △재산범죄(배임, 횡령, 사기 등), △자본시장 관련 범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세 및 금융범죄, 산업재산권 범죄(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등), △부패범죄(뇌물, 배임수재 등), △신사업 분야 범죄(가상자산 관련 사건), △안전 및 규제 관련 범죄(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쟁법 및 선거범죄(공정거래법, 공직선거법 등), △의료계약관련 범죄(리베이트 수수 등), △환경범죄(식품위생, 환경법 위반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형사사건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기업형사재판팀 주요 변호사,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창영, 최한순, 강문경, 도훈태, 하태현, 김세종 변호사)

관련구성원

최창영

대표변호사

02-316-1947

cychoi@shinkim.com

강문경

변호사

02-316-4302

mkykang@shinkim.com

하태현

변호사

02-316-4458

thha@shinkim.com

최한순

변호사

02-316-4707

hsochoi@shinkim.com

김세종

변호사

02-316-4108

sejongkim@shinkim.com

도훈태

변호사

02-316-4090

htdoh@shinkim.com